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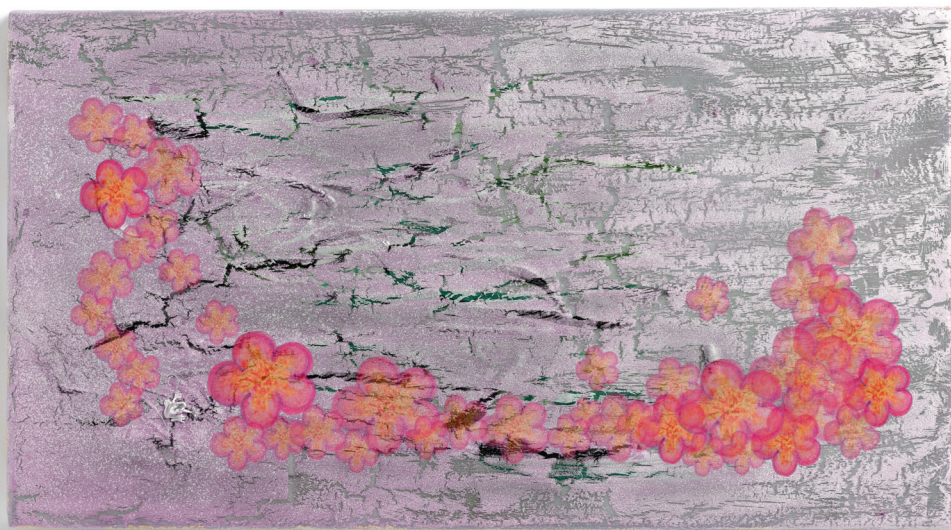
제46호 2024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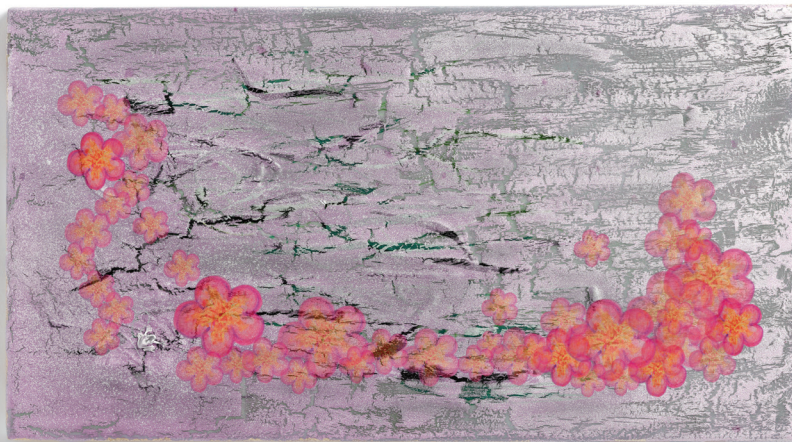
2024. 02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동창회

동 창 회 보



‘추억의 숲’ 박수경(체육교육, 97)



박수경 체육교육, 97 '추억의 숲'

(사)한국철보공예협회 이사장
(주)금하철보 대표이사
공예디자인 연구소 대표
금하철보 반초갤러리 관장

편집위원

회 장 양수화 (음악교육, 74)
부회장 차령아 (교육행정, 96) · 손옥임 (교육행정, 96)
정재용 (화학교육, 94) · 이순원 (체육교육, 86)
감 사 김 정 (미술교육, 00) · 고정숙 (체육교육, 83)
총 무 유경희 (사서교육, 00) · 이복경 (역사교육, 86)
재 정 서희경 (사서교육, 74) · 이영숙 (체육교육, 83)
문 화 신경숙 (음악교육, 98) · 박수경 (체육교육, 97)

인 쇄 : 2024. 2 발행 : 2024. 2 발행인 : 양수화 편집인 : 동창회 임원

발행소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동창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02-3277-2118-9 Fax. 02-3277-2841

<http://ged.ewha.ac.kr>

동창회장 인사말씀 4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동창회장

교육대학원장 인사말씀 5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동창회 소식 및 회원근황 6

모교소식 9

동창수필 14

일흔 살 즈음에 - 유경희

동창수필 16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 이영숙

동창회 임원 18

후원이사 19



동창회장 인사말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동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색을 상징하는 甲(갑)과 용을 의미하는 辰(진)이 합쳐져서 ‘靑龍(청룡)의 해’라고 불립니다.

용(龍)은 우리의 민속과 전통에서 농사의 필수 요소였던 비와 물의 상징물로 여겨질 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 모두 상상의 동물 청룡처럼 푸른빛으로 날아올라, 꿈과 상상의 세계를 펼치시는 특별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최고의 교육대학원으로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본 대학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여성 교육 인력을 양성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든 일들이 곳곳에서 이어질 것이라 믿으며, 서로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더욱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 청룡처럼 비상하기를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새해도 동문들 간의 교류와 모교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모든 일상이 따뜻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하고 새로운 도전과 성취로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에도 동문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동창회장 양 수 화

2024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동문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간 한 해였습니다. 교수, 학생, 직원 모두 이화 캠퍼스의 아름다운 4계절을 감상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일상의 감사함과 다르게 2023년은 교권이 크게 도전받은 해입니다. 어느 사회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교사와 부모의 권위가 가장 먼저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저런 기준으로 편을 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역, 성별, 나이, 학력을 넘어서 이제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교사와 부모, 교사와 행정가, 교사와 교사, 학생과 학생, 부모와 부모 등 모든 구성원의 서로를 향한 분노와 억울함, 권리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교육현장에서는 갈등과 분노보다는 협력과 사랑, 양보, 도덕, 질서 등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교권 문제에 더하여 학령인구 감소, 인공지능의 발전 등은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의 동기를 약화시키고, 이는 당장에 사범대학, 교육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지원하는 학생 수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교원양성 및 재교육을 하는 우리 교육대학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대학원에서는 외부의 변화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교수님들의 연구 및 학생지도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들이 모두 합하여져서 올해에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동문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도 동창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박은혜

◆ 2022학년도 전, 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일시 : 2023년 2월 7일(화) 14:00 ~ 2월 9일(목) 17:00

• 장소 : 메타버스(ZEP) 온라인 진행

* 본교 교육대학원이 주관한 2023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2023년도 교육대학원 동창회보를 신입생에게 제공하였다.

◆ 3월 월례회 (임원 모임)

• 일시 : 2023년 3월 18일(토) 오후 1시~

• 장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길 51 『경복궁』

*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랜만에 동창 임원들이 참석하여 서로 좋은 의견을 나누면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4월 월례회 (임원 모임)

• 일시 : 2023년 4월 15일(토) 오후 1시~

• 장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길 51 『경복궁』

* 동창 임원들이 참석하여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5월 월례회 (임원 모임)

• 일시 : 2023년 5월 20일(토) 오후 3시~

• 장소 :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 양수화 회장님 초청으로 제14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개막작이며 예술의전당 전관 개관 30주년 및 글로리아 오페라단 창단 32주년 기념 공연 G. Verdi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관람하였다.



◆ 6월 월례회 (임원 모임)

- 일시 : 2023년 6월 17일(토) 오후 1시~
- 장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길 51 『경복궁』
* 동창 임원들이 참석하여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9월 월례회 (임원 모임)

- 일시 : 2023년 9월 16일(토) 오후 1시~
- 장소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길 51 『경복궁』
* 동창 임원들이 참석하여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10월 월례회 (임원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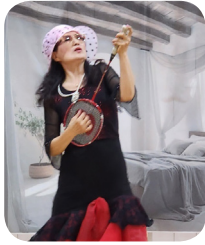
- 일시 : 2023년 10월 21일(토) 오전 10시~
- 장소 :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천안 농장』
* 이순원 부회장님 초청으로 가을 나들이를 겸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11월 월례회 (임원 모임)

- 일시 : 2023년 11월 27일(월) 오후 6시~
- 장소 :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5층 그랜드볼룸
* 본교 총동창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이화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되새기며 뜻있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 근황



고 정 숙 (체육교육, 83)

전, 중등학교 교장 정년 퇴임

현, (주)인텍 유나이티드 교육개발이사

• 5월 30일(수), 6월 28일(화) 여의도50플러스 강당에서, 뮤지컬 맘마미아 출연



박 수 경 (체육교육, 97)

현, (사)한국철보공예협회 이사장, (주)금하철보 대표이사, 공예디자인 연구소 대표, 금하철보 반초갤러리 관장

- 3월 24일~12월 12일 학생, 교사, 학부모 철보 체험_성복고, 백산초교, 동일여고 등
- 5월 31일~6월 6일 사단법인 한국철보공예협회 전시_인사동 경인미술관
- 10월 16일~22일 경덕진 시와 강소성상무부 초청 시찰단 참여_중국경덕진
- 10월 17일 R&D 전통문화산업화기술개발(연구과제: 전통 철보 공예 기술의 친환경적 현대화 기술 개발)_협약_한국연구재단
- 12월 8일, 17일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RIS)사업 전자정보기기사업단 기초·심화 창업심사 및 강의
- 12월 19일 2023'협력, 미래, 소통, 다양성'남부(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미래교육지구 가치 공유의 날_남부교육청 교장 및 장학사 철보체험 (80명)



신 경 숙 (음악교육, 98)

전, 현대중공업 영업기획팀 차장, 한국기타협회 부회장

현, 아주대학교평생교육원·문화센터 등 기타 강사

- 9월 2일 신사동교회에서 "춤으로 보는 성경이야기" 플라멩코 무용 공연
- 11월 1일 리코디아 아트홀에서 세나투스 (한국기타협회 원로합주단) 정기연주회에서 연주
- 12월 28일 한남동주민센터 대강당에서 문화생들과 한남기타합주단 정기연주회 개최



차 령 아 (교육행정, 96)

현, 웃음치료, 운동전문가, 구연동화가회 운영위원, BBC가족 이사

- 지역사회 경로당 순회 방문 웃음 운동과 건강체조 강의 활동
- 교회 웃음 운동 및 건강 체조와 복음 율동 지도 활동 중.



양 수 화 (음악교육, 74)

전, 평택대학교 부총장

현, (사)글로리아오페라단 이사장겸 단장

- 2023년 5월 19일(금)~21일(일)까지 G. Verdi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하였다. 제14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개막작이며 예술의전당 전관 개관 30주년 및 본 오페라단 창단 32주년 기념 공연으로 3일 3회 공연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창단 후 32년 동안 오페라 총 35작품 145회 공연, 콘서트 수십회 이상 공연하였다.
- 2023년 10월 5일(목)예선, 10월 11일(수)본선. '제12회 양수화성악콩쿠르'를 개최하였으며,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본 오페라단 공연에 출연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01 2023학년도 전, 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3학년도 전기/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2023.2.7.(화)/2023.8.8.(화)에 온라인 영상으로 시행되었다. 이미혜 교육대학원 부원장의 사회와 박은혜 교육대학원장의 인사 말씀과 더불어 학사안내, 수강신청, 전공안내 및 교원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였다. 전공별 오리엔테이션은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별도로 진행되었으며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 213명, 후기 신입생 181명이 참석하여 전공주임교수와 재학생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02 2022학년도 전, 후기 학위수여식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2023년 2월)은 202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과 마찬가지로 대면으로 개최되었다. 2022학년도 전기 본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수여자는 총 180명이며, 이 중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총 71명이었다. 학위수여 대표자로 시융합교육 전공의 차밤을 학생이 선정되었고, 특수교육전공 안해님 외 2명의 학생이 발표한 석사 학위청구논문이 우수한 연구와 탁월한 연구 성과로 인정받아 『우수학위논문상』을 수상하였다.

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2023년 8월)은 2023.8.25.(금) 오전 10시에 이루어졌다. 2022학년도 후기 본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수여자는 총 200명이며, 이 중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총 131명이었다. 학위수여 대표자로 특수교육 전공의 명교은 학생이 선정되었고, 중국어교육 홍승원 외 3명의 학생이 발표한 석사 학위청구논문이 우수한 연구와 탁월한 연구 실적으로 인정받아 『우수학위논문상』을 수상하였다.

03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 선정

교육대학원 및 사범대학 6개 전공의 전문가(음악치료교육전공(김수지 교수), 미술교육전공(김효정 교수/연구책임자), 미술치료교육전공(한경아 교수), 음악교육전공(정주연 교수), 교육학과(정제영 교수), 과학교육과(정종우 교수))로 구성된 '늘봄학교 사업팀'은 23년 11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모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2월까지 5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로써 초등 늘봄학교 학생들의 미래 사회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전환교육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료의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문화예술, 심리정서, 창의·과학 3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문화예술 분야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심리정서 분야는 음악과 미술치료를 기반으로, 창의·과학 분야는 요즘 화두인 디지털 융합을 키워드로 교육 프로그램이 설계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예술교육과 예술치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다.

04 2023학년도 공립 교사임용시험 이화인 291명 합격

2023학년도 공립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결과 본교 졸업생 316명이 최종 합격했다. 본교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 1차 교육학 및 전공 시험과,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및 수업 실연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된다. 이화는 지난 2021학년도 311명, 2022학년도 316명에 이어 올해 29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2022년 대비 모집인원이 17% 가량 축소된 가운데서도 이화 출신 합격률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며 유·초·중등 및 특수 교육 분야와 주요 교과교육 전공을 모두 갖춘 종합교원양성기관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특히, 2023학년도 공립교원임용시험에서 본교는 지역별 수석 및 차석 합격자를 다수 배출하였다. 이 중 서울지역 음악교육 차석(이예진, 교육대학원 음악교육 21년졸)과 서울지역 미술교육 차석(이시영,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23년졸)을 교육대학원생이 차지하며 그 위상을 드높였다. 본교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 및 졸업생을 위해 임용고시실 운영과 함께 현직자 선배 등의 외부전문가 특강 제공, 수업시연 공간 및 피드백 제공 등 임용시험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05 2023학년도 후기, 2024학년도 전기 입학전형 일정

• 2023학년도 후기

구분	일시
입학설명회	2023.4.12.(수) 온라인 진행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2023.4.17.(월) ~ 4.24.(월)
입학원서(출력본) 및 제출서류 등기 우송	2023.4.17.(월) ~ 4.25.(화)
면접 전형일정 및 전형장소 공지	2023.5.16.(화) 15:00
전공별 면접전형	2023.5.20.(토)
합격자 발표	2023.6.7.(수)

• 2024학년도 전기

구분	일시
입학설명회	2023.10.10.(화) 온라인 진행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2023.10.16.(월) ~ 10.23.(월)
입학원서(출력본) 및 제출서류 등기 우송	2023.10.16.(월) ~ 10.24.(화)
면접 전형일정 및 전형장소 공지	2023.11.14.(화) 15:00
전공별 면접전형	2023.11.18.(토)
합격자 발표	2023.12.6.(수)

06 전공별 소식

1) 국어교육 전공

▶ 재학생 간담회 및 논문 중간발표회



국어교육 전공은 국어교육 전공 교수와 재학생들이 모두 함께 모여 매학기마다 재학생 간담회 및 논문 중간발표회를 실시한다. 2023-1학기에는 4월 28일에, 2023-2학기에는 11월 6일에 교내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재학생 간담회에는 서혁 전공주임교수를 비롯한 전공 교수와 신입생, 재학생들이 모두 모여 다과회를 가지며 친교를 다지고, 대학원 생활과 연구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논문발표와 학술제를 통하여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피드백을 통하여 더욱 짜임새 있고 독창적인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국어교육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실습 평가회 및 현장 교사 특강



국어교육 전공은 2023년 6월22일 해당 학기에 교육실습을 마친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실습평가회를 가졌다. 실습생들은 각자의 교육실습 경험과 문제 해결 과정을 공유하고, 국어과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 태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교육실습과 평가회를 통하여 전공에서도 지도안 작성, 교수학습 방법, 학생지도 등을 위해 재학생들의 해당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오지민 교사(이화여고)의 “학교 현장의 독서지도

도의 실제” 특강(2023.11.16.)을 통해 도서관 연계 독서 지도의 실제 교수학습 역량을 제고하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졸업(예정)생들의 임용고사 최종 합격률 제고와 실질적인 국어과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대학원 14학번 졸업생인 권경숙 교사(옥빛중) 등이 임용고사 1차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2차 면접 및 수업시연 대비 특강과 실습(2024.01.08.-01.22.)을 실시하였다.

2) 역사교육 전공

▶ 교육실습 평가회 (2023.0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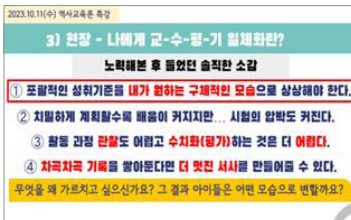
2023학년도 1학기 교육실습생 2명과 박민수 역사교육 전공 주임교수가 참석한 교육실습 사후 평가회가 2023년 5월 2일(화)에 열렸다. 풍부한 학교 현장 경험을 할 소중한 기회로 평가된 이번 교육실습은 특히 전자칠판, 태블릿, 노트북 등 학생 개인별로 IT 기기를 활용하는 최신 디지털 수업환경이 주요 화두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교직 수업에서도 최신 IT 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 교수역량 극대화를 위한 교수법 관련 특강(2023.06.07.)



2023년 6월 7일(수)에는 ‘조선시대사 특강’을 제목으로 하여 전공 특강이 개최되었다. 안산 중앙중학교 역사 교사로 재직 중인 신아영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한 이번 특강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본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교육과정을 보는 교사의 눈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주어진 학교 상황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구상하는 사례가 소개되었다. 학생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역사교육이 달을 수 있도록 교사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 현장연구 강화를 위한 선배교사 초빙 특강(2023.10.11.)



2023년 10월 11일(수)에는 ‘역사교육론 특강’을 개최하였다. 작년 원촌중학교 역사교사로 부임한 교육대학원 졸업생 나지수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한 이번 특강에서는 ‘역사교육 현장과 이론의 이중주’라는 주제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 기출제된 임용고사 문제를 사례로 제시하면서 교사가 어떻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이를 수업과 어떻게 일치시켜야 하는지 등을 배울 수 있었다. 교육대학원에서의 경험과 임용

후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을 진솔하게 풀어내고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3) 체육교육 전공

▶ 체육과학부 체육대회 (2023.11.15.)



2023년 1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체육관 B동 홀Ⅱ 및 스트립에서 진행된 체육과학부 체육대회에 체육교육전공 대학원생도 함께 참여했다. 체육대회는 총 6종목으로 농구, 파구, 색깔판뒤집기, 풋살, 이어달리기, 건강한 학교투어로 진행되었다. 이번 체육대회는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써 뜻깊은 행사였다.

▶ <학교체육 현안 및 임용고시 준비> 특강 (2023.12.06.)



체육교육전공에서는 2023년 12월 6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15분까지 체육교육론 수업 내 특강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졸업생 출신(현 공립 중학교 체육교사) 선배를 초청하여 전공 특강을 진행하였다. 수강생들에게 실제 학교체육 현장에 대해 소개하고 임용고시 준비 전략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수강생들은 선배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4) 영어교육 전공

▶ 2023학년도 1학기 '선배와의 대화' 특강 (23.05.03.)



영어교육전공은 2023학년도 1학기 영어교육과 선배와의 대화(임용1차특강)를 진행하였다. 오랜만에 재개된 대면 특강에 학과 교수, 학부생,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생 총 45명이 참석하며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영어교육과 졸업생인 김이현 월계중학교 교사, 윤지원 매홀중학교 교사가 멘토로 참여하여 재학생들에게 교원임용시험 1차 준비 과정 및 과목별 공부 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으며,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임용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재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전했다.

▶ 2023학년도 2학기 '선배와의 대화' 특강 (23.11.27.)



영어교육전공은 '2023학년도 2학기 선배와의 대화' 행사를 열어 학부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 전공주임 교수님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고, 본과 졸업생이자 현직 중등교사인 18송예림, 19이다연 선배가 특강자로 참여하였다. 임용시험 2차 대비 수업 시연과 면접 준비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으며, 특강 이후에는 Q&A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시연 및 면접 당일 필요한 준비물 및 돌발 상황에서 대처 방법 등 임용 2차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5) 유아교육 전공

▶ 신입생 환영회 및 졸업생 환송회(2023.3.7., 2023.9.6.)

3월 7일(화) 오후 6시 30분에 교육관 B동 253호에서, 9월 6일(수) 오후 6시 30분에 교육관 B동 463호에서 각각 1학과와 2학기 신입생 환영회 및 졸업생 환송회가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유아교육과 교수님이 모두 참석하여 주셨다. 더불어 신입생을 포함한 재학생 및 졸업생이 함께 참여하였다. 신입생과 재학생이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대학원 생활에 대한 교수님의 격려 및 조언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졸업생의 인사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 <이탈리아 유아교육과 보육: 레지오에밀리아를 중심으로> 특강 (2023.04.20.)



비교유아교육론 수업 내 특강으로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 주제의 특강을 개최하였다. 4월 20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교육관 B동 461호에서 진행된 특강은 윤영선(영등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강사가 진행하였다.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의 교육철학 및 주요 가치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사고방식, 아뜰리에 공간 구성 등의 내용을 다루어, 교사들이 레지오 이론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다.

▶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실행연구> 특강 (2023.04.20.)



유아교육론 수업 내 특강으로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실행연구' 주제의 특강을 개최하였다. 4월 20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교육관 B동 462호에서 진행된 특강은 함혜정(아이코리아부속 새세대유치원 원감) 강사가 진행하였다. 실행연구의 필요성과 진행 단계, 반성적 사고과정 등을 다루어, 교사들이 교육현장의 실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로서 일상적인 실행 연구를 이해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을 가졌다.

6) 특수교육 전공

▶ 신입생 환영회 및 졸업생 환송회(2023.09.22.)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대면으로 신입생 환영회 및 졸업생 환송회를 진행하였다. 행사에는 특수교육과 교수님을 비롯한 교육대학원의 신입생, 재학생, 졸업생이 참석하였다. 신입생의 자기소개 및 입학 소감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향후

공부 방향 및 연구에 대한 계획 등을 나누고 함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특수교육과 교수님 소개 후 교수님들의 신입생 환영 및 격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졸업생 인사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7) 미술치료교육 전공

▶ 미술치료교육전공 10주년 학술제 <제1회 이화 아트테라고지> (2023.10.27.~28.)



미술치료교육전공은 10주년을 맞아 Art Institute of Chicago 소속 Chunshan Sandie Yi 교수와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의 Katie O'Neill 미술치료사를 초청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치료교육 전공생들이 'Re-imagining Bodymind', 'Is it Mad Art or Art Therapy?'를 주제로 미술치료사에게 필요한 역량과 앞으로의 비전을 학습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특강을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10월 28일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지영 미술심리전문가를 초청하여 '미술치료에서의 보호자 면담'을 주제로 특강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 미술치료교육전공 전시회 <미술치료를 그리다> (2023.10.27~28.)

학술제 기간 동안 교육관 김애마홀에서는 <미술치료를 그리다>라는 제목으로 전시회가 개최되었으며, 미술치료교육 전공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미술작품 39점이 전시되었다. 해당 전시는 전공생들의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고 미술치료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라는 뜻깊은 장이 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미술치료교육 전공 교수진과 재학생을 포함한 약 100명이 넘는 인원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일흔 살 즈음에

흔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70세라는 숫자는 그 무게감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가족 간에 축하연도 열고, 주변에서 친구들끼리 칠순 여행도 많이 가는 걸 보게 된다. COVID-19로 인해 여행하기 좋은 시기를 놓친 우리 여고 동창생들도 2022년 가을, 2023년 봄, 2차례 국내 칠순 여행을 다녀 왔는데, 나는 2024년 올해 만 70세를 맞이하게 된다.

새삼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여러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부모 형제, 학창시절의 은사님, 친구들, 직장 상사 및 동료, 선·후배 등등...

지방 여고에서 대학에 진학할 때는 그 해에 입학 경쟁률이 비교적 낮았던 행운도 있었고, 또 당시 들어가기 어렵다는 기숙사(신관 226호)는 서울 작은아버지 회사 직원분이 추운 꼭두새벽부터 줄을 서며 수고해 주신 덕분이었다.

그다지 주변머리 없는 성격 탓에 나는 학교 수업만 끝나면 기숙사로 돌아오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공부에 힘쓰는 단조로운 생활을 이어갔고, 주일에는 지금의 중강당에 있던 대학교회에 혼자 참석하곤 했다. 요즘은 학교 환경이나 대학교회도 많이 변했지만, 그때를 추억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이 지금도 어느 교회 예배보다 차분하고 경건해서 좋다는 생각을 한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해 가을에 결혼하였고 두 아이를 낳은 후, 1979년 도서관에 근무하는 친구의 추천 덕분에 이대 도서관에 취직을 했다. 1년 2개월 근무한 후, 남편이 미국 대학으로 연수 차 가게 되어 학교를 그만 두게 되었다. 당시 미국 시라큐스에서 2년간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국가에서 주는 한 달 생활비 690불에서 아파트 관리비 250불을 내고 나머지 440불로 살아가느라 무척 절약하며,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의 아이 돌보기, 리포트 타이핑을 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다.

1982년 6월 한국에 돌아와 9월부터 다시 이대 도서관에 근무하게 되었다. 요즘같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재취업이 어려웠을 텐데, 그때도 운이 좋았던 것 같다. 2009년 명예퇴직 하기까지 도서관의 여러 변화를 몸소 겪으며 내 자신도 성숙해지는 시간이었다. 직장에서 한 단계씩 직위가 올라 갈 때마다 힘들어하는 내게 관장님은 '위로 올라 갈수록 많이 참아야 해요' 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다. 이런 여러 과정에서 즐겁고 보람 있는 일도 많았고, 역시 상사 및 선·후배 동료들의 도움이 컸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세대는 대부분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 풍요로워진 한국에서 후대 세대를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고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된 것 같다.



유경희 (사서교육, 00)
전) 이화여대도서관 과장

2021년 7월 한여름에 해외 근무를 마치고 조기 귀국한 큰아들 가족과 뜻하지 않게 한 집에 같이 살며, 나는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준비한다고 했는데 가족 간에도 서로 마음을 소통하고 잘 지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게 되었다. 당시 중1, 중2가 된 손자 2명, 곧 태어날 아이를 가진 며느리와 아들, 대식구가 들어 오니까 나 혼자 살던 적적한 집이 활기차고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았는데, 그동안 2차례 해외 근무로 교류가 많지 않았던 큰아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해외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다 돌아온 손자들과 며느리는 한국의 일반 학교와 생활 환경에 적응하는 게 불편해 늘 불만이었고, 나는 이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내 아들보다 더 키가 큰 사춘기 손자들은 공부보다 게임에 더 열중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며 소란을 피우는데, 이를 아들, 며느리도 통제하는 게 버거워 보였고, 나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차츰 대화하기를 피하며 조용히 지내게 되었다. 그러다 10월에 셋째 손녀가 태어나는 기쁨도 있었지만, 8개월 동안 서로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한 채 이듬해 4월 분가하게 되었다.

가족 간에 평범한 일상이나 보통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예전에 3년을 같이 살았던 작은 아들네 가족도 자잘한 충돌은 있었지만 당시 아이들이 어려서 그랬는지 큰 문제없이 잘 지냈는데, 이번에는 사람의 성격이나 여러 주변 환경으로 인해 서로 적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시간이 지나 별일 아니었던 것처럼 명절이나 제사 등 집안 행사에서 만나면 그저 반가를 뿐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참고 살아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고, 할머니로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일이 어렵지만 하다.

내 아이들 세대의 장래도 불투명해 보이는데, 그보다 훨씬 치열하고 각박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손주들의 미래가 걱정되기도 한다. 이런 일을 겪을 때면 모든 일을 원만하게 잘 이끌어 나가던 남편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클 때가 많다. 또한 우리 손자들에게는 그동안 양가 할아버지와와의 교류가 불가능한 환경도 정서 함양이나 교육 등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논어 위정편 4장]에 있는 공자님 말씀을 음미해 본다. ‘나는 열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게 되었고, 서른 살에 독립하게 되었으며, 마흔 살에 망설임이 없게 되었고, 쉰 살에 천명을 알게 되었으며, 예순 살에 남의 말을 그냥 그대로 듣게 되었고, 일흔 살에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다.’

공자님의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칠십이종심소욕불유구)’라는 구절이 일흔 살에 접어든 나의 마음에 와 닿는다.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깊은 뜻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가족 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느낌이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인생의 어느 시기에도 공자님의 그런 경지에 도달해 보지 못했는데, 일흔 살이라는 나이도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여서는 도리에 어긋나기 쉬운,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기 위해 아직도 배우고 노력해야 할 게 많은 인생 후반의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해 본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 자보다 악한 자니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풍요한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이웃을 모른척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 의하면, 작년 기준 북한은 세계 경제 자유 지수와 언론 자유 지수가 최하위, 노예 지수와 기독교 박해지수가 최악의 국가로 선정되고, 인권 유린당하고, 자유 없는 삶을 살다가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친족 우리의 북한 동포들입니다.



이영숙 (체육교육, 83)
전) 대구 소선여중 무용교사
현) 북한 기도선교사 과정 훈련중

제가 속한 단체 기도운동 본부에서는 2009년을 시작으로 북한의 영육 구원을 위한 (북한 구원 복음 통일 컨퍼런스) 금식 성회를 통하여 연합하여 북한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음 통일의 금식 성회를 통해 북한의 체제가 79년간의 노예 생활 끝을 내고, 영적 대지진이 일어나 자유의 날이 오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라(히13:3).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잠31:8).

말도 못하고 자유와 인권 없이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해방과 자유를 늦출 수가 없으며, 동족으로서 책임의식을 회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 받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성경에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는 절박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산궁의 유대인 모두와 함께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 기도하며 자기 민족을 구해낸 에스더의 기도가 절실할 때입니다.

분단 79년을 맞으며, 우리 모두 함께 사도 바울같은 심령으로, 에스더의 목숨을 건 기도로, 북한 땅을 살리고 2500만 동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우리의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간절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의 오랜 소원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북한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소서.
모든 것이 풍족하여 넘쳐나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먹을것이 부족하여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동족들을 살려주소서.

북한의 우상화, 신격화 체제가 종식되고, 3대 세습 독재가 철폐되고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체제의 대내적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셔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자유와 해방을 맞보도록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Prayer).
더 많이(much prayer)
더 깊이(more prayer)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복음과 구원을 허락하소서.

동창회 임원

직위	성명	전공/졸업년도	직장
회장	양수화	음악교육/74	현) (사)글로리아오페라단 이사장 겸 단장
부회장	차령아	교육행정/96	현) 웃음치료 전문가, 구연동화가회 운영위원, BBC가족 이사
부회장	손옥임	교육행정/96	전) 당서초등학교 교사
부회장	정재용	화학교육/94	전)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부회장	이순원	체육교육/86	전) 한국사회체육문화재단 이사,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 부회장
감사	김 정	미술교육/00	전) 청담중학교 교사
감사	고정숙	체육교육/83	현) (주)인텍 유나이티드 교육개발이사
총무	유경희	사서교육/00	전)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과장
총무	이복경	역사교육/86	전) 정일학원 강사, 진성기숙학원 강사
재정부	서희경	사서교육/74	현) 예원KOREA 대표이사
재정부	이영숙	체육교육/83	전) 대구 효성여중 무용교사
문화부	신경숙	음악교육/98	현) 이주대학교평생교육원 · 문화센터 등 기타 강사
문화부	박수경	체육교육/97	현) (사)한국철보공예협회 이사장, (주)금하철보 대표이사, 금하철보 반조갤러리 관장
문화부	김정숙	체육교육/98	전) 불곡고등학교 교사
연구부	이선희	음악교육/79	전) 오류여자중학교 음악교사
회우부	정혜영	교육행정/95	전) 경기도 수성중학교 교장
회우부	양향자	국어교육/98	전) 목동초등학교 교사
회우부	이혜숙	교육행정/96	전) 송덕초등학교 교장
회우부	김연정	독일어교육/90	현) 평택대학교 초빙교수
간사	김예나	미술교육/02	전) 남양주 공업고등학교 교사
간사	김은숙	화학교육/83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무과장
간사	박명숙	음악교육/77	전) 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간사	박미진	교육행정/02	전) 송정중학교 교사
간사	신중수	상업교육/73	전) 하나물산 대표
간사	양정은	생물교육/02	전) 당곡중학교 교사
간사	이명님	미술교육/71	현) 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
간사	이명자	유아교육/88	전) 국민대학교 강사
간사	이무순	교육행정/94	전) 경기도 하남 교육청
간사	이은정	과학교육/02	전) 화성중학교 교사
간사	정혜란	특수교육/03	전) 매봉초등학교 교사
간사	최인경	교육행정/06	전) 송라중학교 교사
간사	허경덕	교육행정/02	전) 오마중학교 교사

성명	전공/졸업년도	직장
노 용	미술교육/76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김숙년	교육행정/76	현) 작가, 요리연구가, 한국전통문화학회고문, 전) 교대원 동창회장
김정순	초등교육/90	전) 연신초등학교 교장
노봉옥	지리교육/84	전) 인하공업전문대학 관광경영과 명예교수
박재옥	일반사회/75	전) 교대원 동창회장, 한양대학교 대학원원장, 국가브랜드 위원회 위원
손경순	국어교육/85	전) 신화중학교 교장
신은숙	일반사회/74	현) 세계평화여성포럼 회장
이금정	교육행정/99	전) 개혁신학원 이사장
이윤희	음악교육/78	현) 음악학원 원장
이은주	음악교육/80	전)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출강
이정순	미술교육/70	현) 서양미술사 박사, 전) 교대원 동창회장
이화섭	교육행정/78	전) 청소년교육원장
장선숙	교육행정/69	전) 교대원 동창회장
장의순	일반사회/78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현) 승의여대 교수
정광순	교육행정/72	전) 교대원 동창회장, 상계고등학교 교장
정영자	교육행정/78	전) 교대원 동창회장
주영숙	교육행정/69	전) 덕성여대 총장
최경희	교육행정/97	전)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국식품공업 대표
최길자	가정교육/71	전) 동구학원 이사장
한행자	교육행정/75	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황정숙	교육행정/76	전) 서서울 생활과학고등학교 교장

소식환영



동창님들의 변경된 주소와 근황 및 원고를
『동창회보』에 게재하여 함께 소식을 나누고자 하오니
활동사항을 사진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제한없음(생활수필, 생활시구, 수필, 시, 기타)
- 매 수 : 200자 원고지 10장 내외
- 기 간 : 수시접수
- 보낼곳 : 교육대학원 동창회 사무실

Tel. 02-3277-2118-9 Fax. 02-3277-2841 / MOBILE: 010-9161-016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우)03760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http://ged ewha.ac.kr>

